

무안서 황금박쥐 70여마리 집단 서식 확인

폐광에서 발견...주변 동굴 폐쇄 후 몰려든 듯

“서식지 보호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해야”

세계적 희귀종인 황금박쥐(학명 붉은박쥐·천연기념물 제452호)가 무안의 한 폐광에서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무안군과 한국별종위기야생동물보호협회 등에 따르

면 무안군의 한 폐광에 황금박쥐 73마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다. 보통 한 동굴에 20여마리가 넘지 않는 황금박쥐가 70마리 넘게 집단으로 동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일대 동굴에서 황금박쥐 서식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04년으로, 10년 가까이 서식지를 유지해 온 셈이다. 이 동굴에서 지난 2010년 27마리가 확인된 데 이어 2011년 32마리, 지난해 43마리 등으로 점차 늘었다. 멸종위기동물보호협회는 서식 마릿수가 매우 증가한 것은 주변에 10개가 넘었던 폐광 대부분이 폐쇄되면서 환경이 양호한 한곳에 몰린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폐광이 위치한 임야는 대부분 사유지로 최근 3~4년 사이에 폐광 입구를 폐쇄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함평과 무안, 신안, 진도 등 4개 지역에 230~240마리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270여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멸종위기동물보호협회 최기성 전

부회장은 “황금박쥐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이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최소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함평 일대는 지난 2002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황금박쥐는 박쥐목 애기박쥐과의 포유류로 학명은 붉은박쥐(Myotis formosus chofukusei)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목포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업무협약

다문화 가정 법률서비스 지원

목포시는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와 다문화가정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9일 “이날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정종득 시장, 김중현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장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지역 다문화가정은 결혼이주여성 성·분할, 개명허가신청, 이혼소송,

법률상담, 소송자문 등 복잡한 법률업무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명지원 서비스 신청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인우인보증서 등 기본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세대는 중국이 467세대로 가장 많고, 베트남(243세대), 필리핀(107세대), 일본(43세대), 캄보디아(30세대) 등 966 세대로, 결혼이민자는 680명, 혼인귀화자는 286명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신안리·향교리·백호리

해남 ‘담배없는 마을’ 지정

군, 현판 부착·금연활동 지원

해남군이 지난 7일 해남읍 신안리, 현산면 향교리, 옥전면 백호리 등 3곳을 담배없는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담배모형 절단 및 선포식과 함께 금연다짐 행사를 펼쳤다. 또 마을 회관에 ‘담배 없는 시범 마을’이라는 현판을 부착하고 전 주민이 금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범마을에는 이동금연클리닉이 매주 1차례씩 4주간 운영되며, 이동금연클리닉과 함께 금연상담 및 교육, 니코틴 대체요법 등을 제공한다.



“뜰채로 송어잡아요”

해남군 울돌목의 ‘뜰채 송어잡이’철이 돌아왔다. 울돌목을 사랑하는 모임은 요즘 하루 최고 200~300마리의 송어를 뜰채로 잡고 있다. 울돌목 뜰채 송어잡이는 울돌목을 거슬러 올라오는 송어떼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뜰채를 이용, 건너 올리는 이색 고기잡이 방법으로, 30여 년 전 시작됐다. /연합뉴스

해남군 울돌목의 ‘뜰채 송어잡이’철이 돌아왔다. 울돌목을 사랑하는 모임은 요즘 하루 최고 200~300마리의 송어를 뜰채로 잡고 있다. 울돌목 뜰채 송어잡이는 울돌목을 거슬러 올라오는 송어떼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뜰채를 이용, 건너 올리는 이색 고기잡이 방법으로, 30여 년 전 시작됐다. /연합뉴스

해남군 울돌목의 ‘뜰채 송어잡이’철이 돌아왔다. 울돌목을 사랑하는 모임은 요즘 하루 최고 200~300마리의 송어를 뜰채로 잡고 있다. 울돌목 뜰채 송어잡이는 울돌목을 거슬러 올라오는 송어떼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뜰채를 이용, 건너 올리는 이색 고기잡이 방법으로, 30여 년 전 시작됐다. /연합뉴스

해남군 울돌목의 ‘뜰채 송어잡이’철이 돌아왔다. 울돌목을 사랑하는 모임은 요즘 하루 최고 200~300마리의 송어를 뜰채로 잡고 있다. 울돌목 뜰채 송어잡이는 울돌목을 거슬러 올라오는 송어떼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뜰채를 이용, 건너 올리는 이색 고기잡이 방법으로, 30여 년 전 시작됐다. /연합뉴스

함평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11월부터 과태료 부과

함평군은 9일 “지난 7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공

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

정류장과 택시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6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부안 제2농공단지 지역경제 견인 효과

5개 기업 2600억 투자...1500여 일자리 창출

부안군이 제2농공단지 내에 대규모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 세수 증대 등 선순환 경제구조가 정착되면서 부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감도>



인구 유입 효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2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성공에 따라 군은 32만9000㎡ 규모의 제3농공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3농공단지는 내년까지 국비 70억원 등 총 214억원을 투입한다. 군 관계자는 “제3농공단지는 사해 안고속도로 부안 나들목과 5Km 거리에 있는 등 교통인접 조건도 용이하고 부안을 권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제1·2농공단지와 인접해 있어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남원이 매력 있는 수확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일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숙박업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주 도심개발 ‘서부권 쏠림’ 가속

10년간 행정·상권 대부분 이전...옛 도심 쇠퇴 자초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 10년간 서부권 개발에만 치중, 상대적으로 옛 도심 쇠퇴를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상권·문화·거주 기능의 대부분을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옛 도시에 있던 전북도청, 전북지방경찰청 등 30여개에 달하는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서부권으로 이전했다. 특히 이 기간 서부신시가지지를 비롯해 하가지구, 화산지구, 효자지구, 삼천지구, 서곡지구, 서신지구 등이 속속 개발됐다. 최근 현저지구 개발이 시작되면서 서부권 집중 현상이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역, 터미널 등

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옛 도심의 쇠퇴는 가속하고 있다. 서부권 개발에 따라 옛 도심지역의 인구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 기간 옛 도심 지역인 풍남동과 완산동의 인구는 36.8%, 29.4%나 줄었다. 팔복동(26.9%), 동서학동(26%), 진북동(23.8%), 노송동(23.7%) 등도 썰물 빠지듯 급감했다. 반면 서부권인 효자4동은 163.8% 급증했고 중화산2동은 94.8%, 평화2동은 48.3% 늘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덕진공원, 특화거리 등을 중심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옛 도심의 부흥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서부권에 치중된 개발 탓에 그 효과는 미지수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수확여행지 급부상 남원

올들어 관광객 70% 증가

남원이 매력 있는 수확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연일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숙박업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남원을 찾은 관광객박람회(7개소 740객실) 숙박관광객은 13만 85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 숙박객수는 5만8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11% 증가했다. 8일 현재 호텔 및 콘도에서는 예약률이 100%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써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단신

부안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 체험장 각광

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체험관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체험장으로 부상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9월 “개관 1년 7개월을 맞은 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체험관의 누적 방문객이 지난 26일 기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에

너지테마전시관보다 많은 숫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를 기념해 10만번째 방문객인 윤찬양(광주·15)군에게 DVD포넌트를 증정했다. 신재생에너지단지는 2003년 부안군 위도 방패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 등에 대한 정부 보상차원에서 2011년 건립됐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고창군, 고구마·고추 자동이식기 시연회

고창군은 관내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공음 학원농장에서 ‘고구마·고추 본밭 자동이식기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보인 고구마·고추 자동이식기는 노동력을 절감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경사지 포장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유압식 균평 장치

를 갖추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동이식기의 시간당 작업능력은 약 2000주 10a당 작업소요 시간은 3시간 정도이며, 관행 수작업에 비해 80% 이상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창=윤창형기자 cy0370@

순창군-건양대 지역산업 육성 업무협약

순창군은 9일 군수실에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물품은 순창 건양대 순창’이란 지역 브랜드 및 전문성의 융합으로 지역산업 육성과체계적인 힐링산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양대 산학협력단은 대전과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기간

업지원센터와 의약바이오산업지원센터, 근골격계질환 예방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과 건양대의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임상시험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의약품 등 시험기술 지원 및 공동연구 개발 등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씨감자 포장검사 사전교육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7월 2013년 씨감자 생산 목표를 400t으로 정하고 인원면 사무소에서 씨감자 생산농업인을 상대로 품질인증에 따른 1차 포장검사 전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센터는 농업기술의 수요에 맞

춰 춘화 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포장관리, 바이러스 예방 및 방제, 줄기관리 등 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씨감자 생산체제 구축사업으로 받은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았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북교육청, 내년 4개 학교 개교

전라북도교육청은 9일 “내년에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유치원 2곳 등 모두 4개 학교를 개교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모두 전주시 혁신도시 내에 내년 3월 개교한다. 초

등학교는 40학급(특수 1학급·병설 3학급 포함), 중학교는 37학급(특수 1학급 포함) 규모다. 유치원은 군산시 중앙초교와 임실읍내에 내년 9월에 각각 7학급 규모로 문을 연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